

그날 문신들은 장군의 뺨을 때리고 수염을 불태웠다

태평로

김 태 훈

논설위원



고려는 거란이 세운 요와 세 번 싸웠다. 그중 수도 개경이 불탔던 2차 여요 전쟁이 가장 큰 위기였다. 절체절명에서 나라를 구한 장수가 양규였다. 수많은 전공을 세운 뒤 나신 마지막 전투에서 쏘아지는 화살을 맞고 선 채로 전사했다. 그의 희생 덕에 고려는 기사화했다. 여요 전쟁 이후 고려는 200년 넘는 장기 평화를 누렸다. 하지만 평화에는 기강을 허무는 독성이 내재해 있다. 그 독이 가장 먼저 공격한 대상이 아이러니하게도 고려에 평화를 가져다준 군인이었다. 전몰장병과 그 유족을 숭모와 보훈의 예로 대우하던 나라가 군인을 멸시하고 희롱하는 나라로 타락했다. 그러다가 맞은 것이 무신의 난이었다.

무신의 난으로 쫓겨난 의종은 놀기 좋아하는 왕이었다. 개경 주변 30여 곳에 놀이터를 짓고 싸울 일 없어진 장군들을 광대놀음에 동원했다. 나라 지키려고 연마한 무예를 한날 왕과 문신의 볼거리로 삼았다. 놀이판의 최고 가치는 재미다. 대련을 하던 장군 하나가 밀리는 것을 본 어느 문신이 달려들어 뺨을 때리자 웃음과 박수가 터졌다. 그날 밤 무신의 난이 발발했다. 난리 통에 죽

은 문신 중에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도 있었다. 무신의 난 여러 해 전, 정종부 장군의 수염에 재미로 불을 붙였던 자다. 장군들은 평화로운 고령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잃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나라 지키는 이들에 대한 존중을 잃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휴전 70년의 평화가 군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서인가. 어제 아침 출근하다가 동네 네거리에 채수근 해병 1주기를 맞아 민주당 쪽에서 내건 플래카드를 봤다.

거란과의 전쟁 승리한 고려
평화 지속하자 장군들 멸시해
제복의 명예와 자부심 빼앗고
나라 지쳐달라고 할 수 있나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채해병의 죽음은 안타까운 비극이다. 사고 책임자를 밝혀 엄중히 문책하는 것에 누가 반대하겠나. 그러나 한편으로 ‘민주당이 언제부터 군인의 죽음에 관심을 가졌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민주당은 북한이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 46용사의 목숨을 빼앗는 것에 대해 북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 않았다. 천안함 폭침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 일부 의원은 반대하기까지 했다. 전직 대통령은 천안함 용사와 연평해전 전사 장병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조화조차 보내지 않았다. 이

러니 민주당은 책임을 묻는 것도 선택적으로 하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쳐놓고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인민군과 중공군 전몰자 위령 행사에 간 이도 있다. 6·25 당시 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다부동 전투는 우리 국군의 큰 자부심이다. 미군 장성들도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백선엽 장군 생전에 그를 만날 때면 무릎 꿇어 존경을 표했다. 그런데 한국의 어느 국회의원은 그 전투를 패전이라고 깎아내려 군의 명예에 상처를 냈다. 6·25 때 조국 수호 제단에 피를 뿌린 육군사관학교를 향해선 ‘나라 팔아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성장하지 않았나’라고 막말했다. 명예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이들에게 장군의 뺨을 때리고 수염에 불을 지른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욕을 가했다.

‘핵 가진 북한과 잘 지내겠다’는 인사가 미국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다. 70년 유지된 우리 안보에 중대한 변화가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 국회에선 군복 입은 장군들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한다. 일부에선 지난날 채상병 특검청문회장에서 치욕을 겪고도 감내한 장군들을 기개 없다고 나무란다. 그러나 군인의 기개와 용기는 적과 싸울 때 발휘하는 것이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기에 국민이 지켜주지 않으면 군은 명예를 지킬 길이 없다. 명예를 잃은 군인에게 누가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달라고 할 수 있는가.

김준의 맛과 섬 [101]

보령 파김치 봉장어전골

여름 장마가 끝나가니 기다렸다는 듯이 폭염과 태풍 소식이 들린다. 날씨 만큼이나 몸이 썩빠하다. 옛사람들이 이즈음에 복달임이라는 비책을 꺼낸 이유가 있다. 복달임은 여름을 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가을 준비가 더 크다. 여름 잘 보낸 곡식이라야 가을에 튼실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 그 결실을 공간에 담기 위해 복달임이 필요했다. 여름에 몸에 좋은 해산물로 장어만한 것이 있으랴. 장어는 갯장어, 봉장어, 뱀장어가 있다. 그중 봉장어는 값싸고 몸을 보하는 효과는 다른 장어에 뒤지지 않는다. 어획량도 많고 사철 나오지만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하는 여름철에 잘 어울린다. 우리나라 전 해역에 서식하지만 제대로 대접을 받으려면 통영이나 여수로 가야 한다. 이곳에 모였다가 큰 것

은 국내에서 구이용으로, 중간 크기는 부산을 거쳐 일본으로 수출된다. 중간 크기라면 35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 정도의 크기를 말한다.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스시나 덮밥에 맞는 크기이다. 이 크기를 골든사이즈라고 한다. 35센티미터보다 작은 장어는 잡을 수 없다. 봉장어잡이는 연안과 만나다에서 잡는 것이 다르다. 일본과 접한 만나다에서 오징어 등을 미끼로 낚시로 잡고, 연안에서는 통발을 주로 이용한다. 한 개의 긴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많은 가짓줄을 달고 낚시나 통발을 매달아 잡는다고 하여 연승어업이라고 부른다. 갯장어도 같은 방법으로 잡는다. 갯장어는 뼈가 역세고, 뱀장어는 비싸다. 전골에 봉장어를 택하는 다른 이유다. 식감을 살리고 전골을 끓일 때 장어가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초벌굴이를 한다. 식감을 살리면서 비린내를 완벽하게 잡는 방법이 목은 파김치다. 장어와 파김치에 육수를 넣어 끓인다. 보령시를 가르는 남대천은 뱀장어가 오르내렸던 하천이다. 지금도 하천에 썰아 놓은 돌무더기에서 장어들이 나오곤 한다. 이제 그 뱀장어를 식당에서 만나기는 어렵지만 봉장어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남대천과 서해 바다가 만나는 너른 갯벌과 해안을 장벌이라고 한다. 봉장어가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식당이 ‘장벌집’ 일까.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説

주민 가두고 굶기는 北 김씨들 4대 세습 기도, 쉽지 않을 것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딸 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어린 김주애에 대한 주민 반응을 의식해 선전 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1월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고 평가한 데 이어 북한의 4대 세습 시도를 공식화한 것이다. 북한 선전 도구는 지난 3월 김주애에게 ‘향도’라는 표현을 처음 썼는데 이는 수령이나 후계자에게만 붙이는 용어다. 향도는 ‘나아갈 길을 밝힌다’는 뜻이다. 김주애가 ‘셋별 여장군’으로 불리는 것도 주요 근거다. 김정은도 후계자 시절에는 ‘셋별 장군’이었다. 또 김주애의 공개 활동 중 군사 분야가 60%에서 70%로 증가한 것도 후계 수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2022년 10월 중앙간부학교에서 핵개발을 자랑하며 ‘후사’라는 말을 처음 꺼냈다. 4대 세습 시동을 건 것이다. 한 달 뒤 ICBM 발사장에 김주애를 처음 데리고 나왔다. 작년 초 북한 군 창설 열병식에서 신형 미사일을 보며 손뼉 치는 김주애 독사 진이 등장하더니 주요 군사 활동 사진에서 김주애는 중앙을 차지

하고 있다. 최대 유산인 핵무기를 물려줄 후계자가 김주애라는 이미지를 북 주민들에게 심는 것이다. 각본이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세습 때마다 대형 도발을 해왔다. 김정은일은 아웅산 테러를 일으켰고 김정은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저질렀다. 무력과 폭력으로 세습 정당성을 얻으려는 것이다. 남녀 차별이 극심한 북한에서 여성이 후계자 지위를 굳히려면 종전보다 더한 도발이 필요할 수도 있다. 김씨 정권이 가진 것은 폭력뿐이다. 김주애 후계 공식화는 가법게 볼 문제가 아니다. 김씨 일가가 4대 세습에 성공할지도 의문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철저히 세뇌당하는 북 주민들은 정상적 사고 능력이 떨어져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제에는 한류가 북에 스며들고 있다. ‘한국이 잘산다’는 사실을 모르는 북 주민이 없다. 험벗고 굶주리며 한국을 동경하는 북 주민들은 ‘4대 세습’에 절망할 것이다. 김정은에게 건강 이상이 생기면 ‘김여정 세력 대(對) 김주애 세력’ 등 김씨들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막말 갑질을 특허 낸 듯 하는 일부 국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에서 탈북민 출신 국민의회 박충권 의원에게 “전체 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나온 막말과 갑질에 대해 “인민재판 아닌가”라고 묻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 말은 박 의원의 배경을 조롱하고 인격을 훼손한 명백한 차별과 혐오 발언이다. 전체주의 북한을 탈출한 사람에게 할 말인가. 더구나 때마다 북한 김씨 정권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할 말은 더욱 아니다. 최 위원장은 나중에 사과했지만 민주당은 과거 탈북민 출신 태영호 전 의원에게 “빨갱이” “부역자”라고 하더니 최근에는 정반대로 “극우”라며 혐오 발언을 해왔다. 이번 일은 실수가 아니라 민주당 일부의 탈북민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차별과 혐오 발언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이진숙 후보자를 손가락으로 부르는 듯한 동작을 취하기도 했다. 이 후보에게 “몇 살이나”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했다. 비판이 일자 “전혀 취소할 생각이 없다. 뇌 구조 발언은 사고방식이 이상하다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했

다. 기업에서 다른 사람에게 ‘뇌 구조’ 운운했다면 당사 막말과 갑질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을 언급하며 의원들과 증인의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시키고 있다. 지난날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서는 군복을 입고 출석한 장성을 포함한 3명에게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 일어나라”며 10분간 퇴장시켰다. 국회법 145조 2항은 상임위원장이 의원들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앞서 145조 1항은 위원장의 경고나 제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를 퇴장의 전제로 하고 있다. 제 기본대로 퇴장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국회법 146조와 147조는 모욕 발언과 발언 방해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의 갑질은 국회법에 근거한 게 아니라 반대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국한될 뿐이다. 탈북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발언은 상임위원장 직무와 아무 상관이 없다. 2007년 대법원은 “직무와 관련 없음이 분명하거나,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막말 갑질을 특허 낸 듯 하는 일부 국회 상임위원장의 자증을 바란다.

뒤늦은 제2 부속실 설치, 제 기능 하느냐가 관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선 캠프 때부터 일했던 대통령실 내부 인사를 부속실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설치 의사를 밝힌 지 6개월 만이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 여사 전담 조직을 두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그동안 김 여사의 각종 활동과 일정이 공적 조직을 통해 관리되지 않자 여러 논란이 일었다. 김 여사는 의도적으로 접근한 친북 인물과 만나 명품 가방을 받은 일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 변호인은 대통령실 입장과 다른 해명을 내놓아 논란을 키웠다. 리투아니아 순방 중엔 김 여사가 명품 매장에 들른 것이 구설에 올랐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팬클럽에 보내고,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팬클럽을 통해 사전에 공개되기도 했다. 대선 때는 인터넷 매체와 8시간 가까이 통화한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김 여사가 대통령실, 정치권·문화계 인사, 언론인, 유튜브 등과 수시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김 여사 문제만 나오면 대통령실 대응이 꼬이고 납득하기 힘든 일이 반복됐다. 이는 김 여사에게도 좋지 않고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됐다. 그때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 여사를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무슨 이유인지 묵살되기도 했다. 김 여사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큰 공적 책임이 있다. 제2부속실도 김 여사의 단순한 개인 비서가 아니다. 철저한 공적 의식으로 김 여사의 일정·행사·메시지·의전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려면 김 여사의 지인이나 측근만이 아니라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공직자들도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기존 배우자팀에는 김 여사의 전시기획사 임직원들이 포함돼 있었다. 친북 인물과 만남을 조율한 행적판도 이곳 출신이었다. 이 기회에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국회 추천을 요청해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

이재명 부류의 술책 변경

《탄핵》→《윤석열 임기 단축 개헌》… [상습 쿠데타 #3] 시동?

뉴데일리
newdaily.co.kr

- 김두관 바람 잡고, 이재명·조국·이준석 북 치고
- 우원식 “국회개헌특위 설치” 장구 치네
- ① 광우병 ② 촛불난동 이은 상습정변 획책

꾼들의 [혁명 질]

국파 NL 혁명꾼들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민중해방 민주주의 혁명]으로 뒤엎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제도 정치권에 일단 참여해 [혁명 질]을 하려 한다.

NL 운동꾼들은 1987년 민주화 개헌 때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해 잡팔한 재미를 보았다.



◀ [박근혜 탄핵]의 1등 공신은 누가 되려 해도 당시 새누리당에 유승민 부류의 [배신]이었다. 2등 공신은 쫓대 없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윤석열 탄핵]을 향한 좌파의 술책이 [윤석열 임기 단축 개헌]으로 술책 포장을 바꾸려는 듯하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회귀한 달콤한 꾀대기로 포장해서.

[좌]로 완전 기운 세상

NL 운동꾼들은 김대중당을 숙주 삼아 정계의 유력한 패거리로 컸다. 그들은 이내 [진보 야당]으로 독립했다.

열린우리당이었다.

국회 밖에선, ★각종 시민단체 ★급진 노조 ★문화단체 ★아스팔트 전투조직 ★언론 단체 ★학생 단체를 만들어 대중을 선동했다.

열린우리당보다 더 좌경한 급진 정당들도 속출했다.

커진 NL 꾀들은 2000년대 들어 우파 타도에 적극, 나섰다.

★효순이 미선이 사태 ★광우병 난동 ★박근혜 탄핵... 이를 거처 세상은 [좌]로 완전히 기울었다.

[좌파]와 [중간파]의 짝꿍이

[힘 관계]가 뒤집힌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나?

보수 정치꾼 일부와 상업 언론들이 보수이기를 포기하고

[중간파]로 좌(左)클릭한 것이었다. 좌파 물살에 맞춘 ★기회주의 중간파 ★양다리 걸치기 사는 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자, 국파와 중간파는 더더욱 [합좌파] [합치] 필요성을 고집했다.

좌파는 윤석열을 얻으려면, 비(非) 좌파 일부를 끌어안아야 했다. 중간파는 좌익 재집권 때 살아남으려면, 이들에게 미리 보형을 들어야 했다.

이 둘은 짝꿍이 됐을 법하다.

“탄핵은 절차가 까다롭다. 이보단 [대통령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

이재명·김두관은 최근 개헌 화두를 내걸었다. 조국·이준석도 같은 말을 했다. 국회의원장 우원식도 지방선거 때 개헌도 함께 하자고 했다.

국힘 내 협치파, 또 [국공합작]?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지금은 그런 개헌 의도에 반대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회주의 일부]가 언제 어떻게 표변할지 뉘 알랴?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과학적 중우정치] 입자들도 또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찬성여론이 57% 어찌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운동권에 대한 [강성 투쟁]보다 [협치(協治)] 파가 더 세졌을지 모른다. 그렇기에 [중도·합치] 파한동훈이 대표로 뽑힌 것 아닐지.

뭔가 또 한 차례, [좌파+중간파] 국공합작이 꿈틀거리나? 이들의 [상습 쿠데타 #3]을 분석하자!

이류 근 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

류근일 칼럼 : 내전, 《한국 내전(Korean Civil War)》이다

《이진숙 청문회》 취질했다... 《다부동 전투》였다. 패총성 없는 전쟁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7월 28일 게재 되었습니다.

